

- 인문계열문항 1-1 -

(가)의 촌장은 마을 사람들에게서 마을의 단결을 위해 두려움의 대상인 '이리'의 실체를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나)에서는 집단의 생존과 결속에 외부 위협 요소의 존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가)의 촌장과 (나) 모두 집단의 단결이 외부의 적대적 요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외부 요소가 실제로 위협적인지와 같은 진실은 중요하지 않으며, 해당 요소가 조직의 단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바라본다. 결국 (가)와 (나) 모두 외적 요소가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 인문계열문항 1-2 -

집단 A와 B 모두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유리한 뉴스인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뉴스가 진짜인지를 차선 기준으로 해당 뉴스를 인식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내집단에 유리한 가짜 뉴스를, 타 집단에 유리한 진짜 뉴스보다 '진짜'라고 생각한 것이다. <표1>의 '전체'와 '여타 집단'의 답변을 보면, 그들은 어느 집단에 유리한 뉴스인지 보다는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기준으로 답변의 수치가 상이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 A와 B는 뉴스의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속해있는 집단에게 유리할 뉴스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표2>에서는 대상에 따라 집단이 느끼는 감정의 긍정적인 정도를 보여준다. A집단의 경우 다른 대상과 비교했을 때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해당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또한 <표1>에서 A집단이 자신의 집단과 정치적 성향이 반대인 B집단에 유리한 뉴스를,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이를 통해 A집단은 집단의 결속성과 단일성이 강한 조직이며, 이를 위해 단일성에 반하는 요소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인 문 계 열 문 항 2-1 -

마지절은 화가의 명성이나 자신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무식하다고 여겼던 농부의 의견을 순순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미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지절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지 못한 채 농부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의 자료인 이중섭의 <싸우는 소>와 현실의 소싸움 사진에서 싸우고 있는 소는 모두 꼬리를 뒤로 빼고 있다. 소가 꼬리를 빼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투우도를 그린 대승또한 이중섭처럼 자세한 관찰을 통해 발견했을 그 사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마지절은 그러한 생각에까지 가닿지 못했던 것이다.

- 인 문 계 열 문 항 2-2 -

<다>는 무조건적으로 약자를 옹호하고 강자를 비난하는 언더도그마 현상을 설명한다. 오버도그와 언더도그, 즉 약자와 강자의 견해가 충돌할 때 약자에게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신뢰와 정직함을 부여해 그의 편에 서고 강자에게는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을 가하는 것이다.<가>의 마지절 입장에서 강자와 약자, 즉 오버도그와 언더도그는 뚜렷이 구분된다.마지절은 유명하고 돈이 많은 대승을 오버도그로, 그에 반해 소작료를 내는 처지에 있는 가난하고 글 모르는 농부를 언더도그로 보았을 수 있다.따라서 농부가 그림에 대해 말했을 때 마지절이 순순히 그 말을 신뢰하며 대승을 무시하고 그림을 찢어버리기까지 한 것을 언더도그마에서 비롯된 언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의 개념과 구성 요소들이 <가> 상황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이러한 적용은 자칫 타당한 이유로 약자를 지지하는 상황에 대한 일반화를 불러올 수가 있다.마지절이 농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을 단지 무조건적으로 약자를 지지하고 강자를 비판한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이름난 화가인 대승이 소에 대해서는 농부보다 무지했다는 그의 말을 통해,마지절은 언더도그마와는 관계없이 그저 농부가 화가보다는 소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 그러한 행동을 한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1-1, 1-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갈등, 집단, 외부의 적, 가짜뉴스
예상 소요 시간	50 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자료

<가>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파수꾼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파수꾼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구 그런단다. ‘이리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파수꾼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파수꾼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파수꾼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덧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파수꾼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덧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된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복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 이강백, <파수꾼>에서

<나>

투쟁하는 집단은 갈등의 지속이 곧 자기 집단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부단히 갈등을 유발해야 한다. 집단 내부의 단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갈등이 객관적으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집단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은 그들이 외부의 위협을 감지하거나 감지하도록 환기하는 조건뿐이다. 이때 위협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집단이 위협의 존재를 느끼기만 하면 된다.

개인의 갈등이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면적인 긴장 해소 요구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집단이 적을 찾는 목적은 구성원들을 위해 어떤 실질적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기 집단의 구조를 존속시키려는 데 있다. 심지어 투쟁하는 집단을 생기게 한 초기의 갈등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도, 그 집단들은 처음 그들이 집단을 만들던 시점의 모습 그대로여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처럼 투쟁적으로 활동한다. 조직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스스로 와해해버리게 되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조직은 어차피 해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체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직은 새로운 목적을 찾아 내게 된다.

만약 적이 없어지게 되면 위태롭게 될 집단의 존속을 위해서, 집단은 새로운 적을 찾게 된다. 외부에서 적을 찾아내거나 적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과 같은 방식은 단순히 집단 구조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력의 저하나 내부 불화로 집단 응집력이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한다. 외부와의 첨예한 갈등은 구성원들의 경계 태세를 소생시키고 이탈 경향을 약화시켜서 집단 내 반대자에 대한 일치된 대응 행동을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다>

<표 1>과 <표 2>는 최근 000 국가에서 ‘집단의 성향 차이에 따라 진짜/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은 응답자들에게 서로 다른 6개의 뉴스를 차례대로 제시하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는지 거짓이라고 믿는지에 대해 대답한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각 뉴스별로 ‘완전히 거짓’(1점), ‘대체로 거짓’(2점), ‘보통’(3점), ‘대체로 사실’(4점), ‘완전히 사실’(5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답했다. A집단과 B집단은 상반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

<표 1> 진짜/가짜 뉴스에 대한 집단별 사실 여부 인식

	1. A집단에 유리한 '진짜 뉴스'	2. A집단에 유리한 '가짜 뉴스'	3. B집단에 유리한 '진짜 뉴스'	4. B집단에 유리한 '가짜 뉴스'	5. 집단별 유효리와 무관한 '진짜 뉴스'	6. 집단별 유효리와 무관한 '가짜 뉴스'
전체	3.38	3.22	2.85	2.81	3.34	2.21
A집단	3.74	3.75	2.39	2.08	3.36	2.17
B집단	3.08	2.80	3.28	3.65	3.56	2.22
여타 집단 (A와 B에 속하지 않는 집단)	3.30	3.12	2.92	2.82	3.21	2.20

<표 2>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한 것이다. 감정온도는 질문받은 대상에 대해 응답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온도로 답변한 것으로서, 0도에 가까울수록 대상에 대해 차갑게(부정적으로) 느끼고 100도에 가까울수록 따뜻하게(긍정적으로) 느낀다.

<표 2> 대상에 따른 집단별 감정온도

대상	전체	A집단	B집단	여타 집단 (A와 B에 속하지 않는 집단)
----	----	-----	-----	----------------------------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에 대해	49.4	42.3	50.6	51.6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에 대해	60.0	61.2	61.1	59.1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해	54.4	53.8	55.9	54.4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54.1	56.5	54.4	53.6

- 1-1. <가>의 ‘총장’의 주장과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 1-2. <표 1>에 나타난 A와 B 두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서술하고, <표 1>과 <표 2> 그리고 <나>의 논지를 활용해서 A집단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600±60자)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현대 정치의 위기 징후인 집단간 적대감 등을 분석할 현상으로 보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찾으려는 것을 배경적 목적으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수험생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 갈등’과 ‘가짜 뉴스 소비’ 관련 통계 자료를 고교 국어와 사회·문화 교과과정에서 배운 논리를 바탕으로 실제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출제되었다.

한편, 전통적인 문해력이 문자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에 관계했다면, 최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는 <표>나 <그래프> 등 숫자와 시각 자료를 통해 정보를 파악하는 ‘데이터 문해력’의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는 세 개 제시문과 함께 그래프를 함께 제시해서, 이에 대한 능력도 함께 평가하고자 했다.

이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이 문항은 세 개의 제시문과 부가되는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는 능력과 더불어 이 텍스트들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 2개를 구성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10국05-02]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10국05-04]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관련	
	제시문 <가>	
	2.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1-01]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제시문 <나>
성취기준 2	[12사문01-03]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의 유형과 특징을 비교한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국어	신유식 외 9인	미래엔	2018	44-45쪽	제시문 <가>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7인	비상	2019	92-93쪽	제시문 <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갈등의 사회적 기능	루이스 코저	한길사	1980	129-132쪽	제시문 <나>	○
미디어의 이용과 확장편향층의 형성 및 그 특징	에스티아이	에스티아이	2023	2023년 5월 18일 보도자료	제시문 <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이강백, 「파수꾼」(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과서에서 발췌)

- <가>는 극작가 이강백의 희곡 「파수꾼」의 일부로서, 이리떼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낸 ‘파수꾼 다’와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유하려는 마을 ‘촌장’의 대화를 담고 있다. 촌장은 처음부터 이리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을의 단결과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오래전부터 망루를 설치하고 파수꾼을 두어 경계하게 했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촌장은 집단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서 가상의 외부 적이 필요하고 개인의 희생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나>: 루이스 A. 코저, 「갈등의 사회적 기능」(박재환 옮김)(서울: 한길사, 1980), 129-132쪽. (축약 및 윤문)

- <나>는 투쟁하는 집단이 존속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첫째, 투쟁하는 집단은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해서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때 외부 위협이 반드시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둘째, 투쟁하는 집단은 본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투쟁하는 집단은 내부 응집력의 강화와 존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찾고 외부와의 갈등을 과장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다>: 에스티아이, “미디어의 이용과 확증편향층의 형성 및 그 특징”(2023년 5월 18일 보도자료) (축약 및 수치 재구성)

- <다>는 ‘집단의 성향 차이에 따라 진짜/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두 개의 <표>와 간단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은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는 A집단과 B집단이 집단별 유불리에 따라 진짜뉴스와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수준이 다른지에 대해 정리한 것인데, 이 A, B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자기 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았던 데 반해,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를 통해서 A와 B 두 집단은 집단 이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했지만 집단의 이해와 관련한 사안에는 현저하게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여러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분류한 것인데, A와 B 두 집단은 성별, 종교, 국적이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데 반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는 A집단이 B집단이나 여타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를 통해서 A집단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을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제의 구성

1-1. <가>의 ‘촌장’의 주장과 <나>의 논지를 요약하고 공통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 이 문항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적 재현인 문학작품(희곡) <가>의 내용을 논리적인 언어로 바꾸어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구성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촌장의 주장을 <나>의 논지와 비교해서 공통된 내용을 찾아내면 쉽게 답안을 서술할 수 있다.

1-2. <표 1>에 나타난 A와 B 두 집단의 공통된 특성을 서술하고, <표 1>과 <표 2> 그리고 <나>의 논지

를 활용해서 A집단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600±60자)

- 이 문항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앞부분은 <표> 해독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표 1>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뒷부분은 이 정보와 <표 2>에서 찾아낸 핵심 정보(‘차이’)를 <나>의 논지를 통해서 해석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되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1-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제시문 <가>의 ‘촌장’의 주장】</p> <p>① 명시적 주장 - 촌장은 이리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루를 설치하고 파수꾼을 파견해서 경계하게 하면서 이를 마을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p> <p>② 명시적 주장을 개념적 언어로 환언 - 촌장은 집단 유지와 질서를 위해서는 외부의 적이 필요하고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때 외부의 적이 반드시 실존할 필요는 없다.)</p> <p>【제시문 <나>의 논지】</p> <p>③ 투쟁하는 집단은 외부와의 갈등을 유발해서 내부 단결을 도모하는데, 이때 외부 위협이 반드시 실제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투쟁하는 집단은 본래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계속 존속하기 위해 새로운 적을 만들어낸다. 요컨대, 투쟁하는 집단은 내부 응집력의 강화와 존속을 위해서 외부의 적을 찾고 외부와의 갈등을 과장한다는 것이다.</p> <p>【공통점 서술하기】</p> <p>④ <가>의 촌장과 <나>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공통된다.</p> <p>⑤ 이때 외부의 적이 반드시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했으나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경우	2등급
	③, ④, ⑤를 충족했으나 ①, ②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을 충족했으나 ④, 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4등급
	①, ②만을 충족하고, ④, 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5등급
	③만을 충족하고, ④, ⑤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	6등급
	①, ② 또는 ③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고, ④, ⑤에 대해 서술하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가 모두 부족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1-2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표 1>에 나타난 A와 B 집단의 공통 특성】</p> <p>① <표 1>에서 두 집단의 공통 특성 서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B 두 집단은 공통적으로 자기 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았던 데 반해,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정도가 높았다. <p>② <표 1> 내용에 대한 개념적 해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B 두 집단은 집단 이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했지만, 집단의 이해와 관련한 사안에는 현저하게 비이성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표 2>에 나타난 A집단의 특성】</p> <p>③ <표 2>에서 A집단의 특성 찾기와 개념적으로 해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B 두 집단은 성별, 종교, 국적이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데 반해,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는 A집단이 B집단이나 여타 집단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를 통해서 A집단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을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표> 분석 결과를 <나>의 논지와 결합해서 평가하기】</p> <p>④ A집단이 집단 유불리에 집착한다는 <표 1>의 내용과 A집단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B집단을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표 2>의 내용을 집단이 내부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갈등 상황을 유지하고 과장한다는 <나>의 논지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A집단은 집단의 존속과 내부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B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용해서 이들을 외부의 적으로 만들어서 일치된 전략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⑤ 답안 구성과 서술의 체계성을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 구성이 체계적이어서 충분한 정보를 담아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 답안 서술시 본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해서 서술했는지를 평가함.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4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를 충족하고, ⑤가 부족한 경우	2등급
	③, ④, ⑤를 충족하고, ①과 ②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④, ⑤를 충족하고, ③이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⑤를 충족하고, ④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④를 충족하고, ①, ②, ③이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가운데 세 항목이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가운데 네 항목이 부족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모두 부족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1-1.

<가>에서 촌장이 이리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망루를 설치하고 파수꾼을 두어 경계하게 한 데서 그가 집단의 유지와 질서를 위해서 외부의 적에 대한 경계심이 필요하고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투쟁하는 집단은 단결과 존속을 위해서 구성원에게 외부의 적의 존재를 환기하고 그 위협을 강조하며 기존의 외부 위협이 사라지면 새로운 위협의 대상을 찾는다고 본다. <가>의 촌장과 <나>는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필요로 하면서도 실제로 반드시 적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314자)

1-2.

<표 1>에서 A와 B 두 집단은 모두 자신의 집단에 유리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았던 데 반해, 집단별 유불리와 무관한 내용의 뉴스에 대해서는 여타 집단과 비슷하게 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이를 통해서 A와 B 두 집단은 집단 이해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상식적인 판단 능력을 발휘했지만, 집단의 이해와 관련한 사안에는 현저하게 자기 집단에 편향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A집단은 성별, 종교, 국적이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에서 B집단이나 여타 집단과 큰 차이가 없었던 데 반해, 유독 정치적 견해가 다른 대상에 대한 감정온도는 크게 낮았다. A집단이 집단 유불리에 따른 편향된 태도를 갖는다는 <표 1>의 내용과 A집단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B집단을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표 2>의 내용을, 외부와의 첨예한 갈등이 집단 내 반대자에 대한 일치된 대응 행동을 생성한다는 <나>의 논지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A집단은 B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바탕으로 이들을 외부의 적으로 설정해서 내부의 단결을 도모하고, A집단의 존속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을 취하게 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601자)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4학년도 모의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항 2-1, 2-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사실, 판단, 갈등
예상 소요 시간	50분 / 전체 100 분	

2. 문항 및 자료

<가>

당나라 때의 유명한 화백 대승(戴嵩)은 면밀한 관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소를 잘 그려서 이름을 떨쳤다. 그 그림들의 가치는 돈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승이 그린 투우도(鬪牛圖) 한 폭이 전해져 내려오다 송나라 재상인 마지절(馬知節)이 이 그림을 소장하게 되었다. 마지절은 그림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고금의 그림을 수집하여 감상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가 소장한 투우도는 유명한 명인이 오랜 세월의 관찰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소싸움 모습을 그린 작품인지라 그는 이 그림을 극진히 아꼈다. 혹여 그림에 별레나 좀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단으로 덮개를 만들고 옥으로 족자봉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햇빛과 바람이 좋은 날을 택해 자주 밖에 내다 말리며 수시로 일광욕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청 앞에 그림을 걸어놓고 바람을 쐬어주고 있는데 소작료를 내려고 찾아온 한 농부가 먼 밭치에서 그 그림을 보고는 피식 웃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농부가 그림을 보고 웃다니...’ 마지절은 화가 나서 농부를 불러 세웠다.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웃었느냐?”

농부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놈아! 이 그림은 당나라 때의 대가인 대승의 그림이다. 그런데 감히 네가 짓게 그림에 대해서 무얼 안다고 함부로 비웃는 것이냐?”

마지절이 불같이 화를 내자 농부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 같은 무식한 농부가 어찌 그림에 대해 알겠습니까? 하오나 저는 소를 많이 키워보고 소가 서로 싸우는 장면도 많이 보았기에 소의 성질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요. 소는 싸울 때 머리를 맞대고 힘을 뿔에 모으고 서로 공격하지요. 하지만 꼬리는 바싹 당겨 두 다리 사이의 사타구니에 집어넣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빼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센 청년이라도 소꼬리를 끄집어낼 수 없지요. 헌데 이 그림 속의 소는 꼬리를 뒤로 뺀 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절로 웃음이...”

농부의 말에 놀란 마지절은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대청에 걸어놓고 일광욕을 시키던 대승의 그림을 찢어버리며 탄식했다.

“대승은 이름난 화가이지만 소에 대해서는 너보다 더 무식했구나. 이런 엉터리 그림에 속아 평생 찢지 못할 부끄러운 헛일을 하고 말았도다. 그간 애지중지했던 내가 정말 부끄럽구나.”

<나>

소 그림 가운데 가장 격렬한 동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싸우는 소다. 호암갤러리 전시에 출품되었던 <싸우는 소>는 이제 막 싸움이 시작되는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일정한 바탕색을 가한 후에 격렬한 동세에 따라 터치로 윤곽과 근육의 조직 및 꼬리의 모습을 예리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굵은 터치이거나 날카로운 선조에 의하거나 소의 격렬한 동세를 이렇게 단숨에 파악해 들어간다는 것은 소의 생태, 소의 해부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쉬고 있는 소와 싸우기 직전이나 싸우는 도중의 소가 갖는 각각 다른 표정, 그리고 움직임에 따른 근육 조직 및 꼬리 등의 변화는 소의 생태와 해부학적 연구가 오랫동안 진척되지 않고서는 파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적인 상태의 것이 아닌 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는 더욱 까다롭기 마련이다.

이중섭이 몇 번의 터치에 의해 소의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구현해 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소에 대한 관찰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동경 시대부터 소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소에 대한 관찰과 스케치는 이미 데뷔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해방 후 원산 시대에도 여전히 소를 모티프로 한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었으며 이때의 관찰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들에 나가 소를 관찰하는데 어찌나 소를 유심히 보는지 소 임자가 소도둑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에피소드는 유명하다.

원산 시대 이중섭 주위 사람들은 그가 소만 관찰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부둣가에 나가 생선과 생선을 파는 여인네들도 열심히 관찰하고 스케치했다고 전하며 집에서 기르는 닭도 열심히 그렸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중섭의 작품은 하나같이 관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현장 스케치를 통한 관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격렬하게 얽혀 싸우는 소의 동작을 재빠른 붓놀림으로 거의 한숨에 내달릴 것 같이 표현해내고 있음도 이중섭의 소에 대한 오랜 관찰의 극히 자연스러운 결정체에 다른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중섭의 <싸우는 소>(호암갤러리 소장)



현실의 소싸움 사진

<다>

언더도그마(Underdogma)는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선량하며 정직하고, 힘이 강한 사람은 힘이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믿음을 가리킨다. 언더도그마는 약자와 강자

의 주장이 대립할 때 힘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약자 편에 서면서 그 약자에게 신뢰와 정직함을 부여하고, 강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비난을 보내는 것이다. 랍비인 슈몰리 보태악은 언더도그마의 개념을 “둘의 견해가 충돌할 때, 강자보다 약자의 말에 쉽게 귀 기울이며 믿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오버도그(Overdog)와 언더도그(Underdog), 즉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 강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우선적인 동조와 지지를 보인다. 이런 증거는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성서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부터 미국 독립운동가, 1980년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강 소련팀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 하키팀, 영화 <록키> 시리즈의 록키 발보아, 자메이카의 봅슬레이팀 등의 사례에서 보듯 많은 이들은 오버도그를 외면하고 언더도그에 호응한다.

이런 현상은 현대의 실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대형마트 체인이 동네에 들어설 때 사람들은 일치단결해서 대형마트 경영자를 비난하고 동네에 있는 언더도그 구멍가게 편에 서는 경향이 짙다. 회사 사장과 직원 간 마찰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으레 직원의 말에 더 솔깃해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치가 충돌할 때 힘이 강한 오버도그를 반사적으로 비난하고 힘이 약한 언더도그의 말에 솔깃하며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2-1.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마지막의 미덕(美德)을 쓰고, <나>의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그의 행위를 비판하시오. (300자±30자)

2-2.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과 그 구성 요소들이 <가>의 상황에 적용될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오. (600자±6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마지막절이란 인물이 보인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가,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가를 묻기 위해 출제되었다. <가>지문에서 마지막절은 그가 아끼던 유명 화가의 그림을 비웃은 농부에게 그 까닭을 묻고 그 이유가 “그림의 싸움소는 소꼬리를 밖으로 빼고 있는데 소는 싸울 때 결코 꼬리를 밖으로 빼는 일이 없는 바, 그림이 현실에 바탕하지 않았기에”라고 하자 그 말을 수용하고 그림을 찢어버린다. 이 일화에서 학생들이 얻는 일반적인 교훈은 “명성보다는 실재를 잘 아는 현장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의 미덕” 정도가 될 것이다. <나>의 지문에서는 반전이 있다. <가>에서 말하던 농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중첩이 오랜 관찰을 통해 그린 소싸움 그림은 소꼬리를 밖으로 빼고 있고, 현실의 사진에서도 소가 꼬리를 빼고 싸우는 장면이 보인다. 농부의 말 “싸울 때의 소는 절대로 꼬리를 밖으로 빼는 법이 없다”는 오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가>의 상황을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2번 문제에서는 마지막절의 행동을 <다>에 소개된 ‘언더도그마’라는 개념을 통해 풀어낼 수 있는가를 물었다. <가>가 구체적인 사건이라면 <다>는 이를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는데, 그 틀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은 것이다. 마지막절의 행동은 언더도그마와 닮은 점이 있다. 유명 화가도 알고 보면 소를 오랫동안 관찰한 전문가인데, 마지막절은 둘의 대립에서 농부만 전문가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은 둘의 명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바, 그 유사성을 추출해 낼 수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마지막절이 농부의 전문성을 더 높은 것으로 생각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이므로 그것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는가도 물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별책5]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도덕과 교육과정[별책6]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2. 교과명: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3. 교과명: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1)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만 작성함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아래 표에 작성함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성잡지	증민행	상무인서관	1937	92		○
이중섭	오광수	시공사	2000	48-51		○
인터도그마	마이클 프렐 지음 박수민 옮김	지식갤러리	2012	20-22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증민행, 『독성잡지』(상무인서관, 1937)

이 글은 송나라 사람 마지절이란 이의 일화를 담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지절은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 중에서도 당나라의 화가였던 대송의 소싸움 그림을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날 농부의 말 한 마디에 그림을 찢어버리게 된다. 농부의 말에 따르면 소는 싸울 때 절대로 꼬리를 밖으로 빼는 법이 없는데 대송이 그린 그림은 소의 꼬리가 밖으로 나와 있어 엉터리 그림이란 것이었다. 마지절은 농부의 말을 듣고 즉시 그림을 찢는데, 이 행위로 볼 때 그가 현장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더 확장하자면 이런 현장 전문가의 말을 듣는 태도들이 모두들에게 필요함을 알린다 하겠다. (사실을 담은 그림이 진실하다는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현장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 : 오광수, 『이중섭』(시공사, 2000)

이 글은 이중섭의 그림을 그리는 태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중섭은 소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인데 그는 소그림을 그릴 때 언제나 면밀한 관찰을 통해 소를 역동적으로 그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가>의 제시문과 비교해 보면 뜻밖의 모순을 지니고 있다. <가>에서는 소는 싸울 때 꼬리를 절대로 밖으로 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의 이중섭 그림은 꼬리를 밖으로 빼 채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실의 사진 또한 꼬리를 밖으로 빼 채 소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제시문 <다> : 마이클 프렐, 『언더도그마』(지식갤러리, 2012)

이 글은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 사람들은 약자편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현상을 소개하고 개념화하고 있다. 글에 따르면 골리앗과 다윗, 대형 체인점과 골목 상권 등의 대립이 있을 때 사람들은 늘 약자가 옳고 정의롭다고 보는데, 이것을 그는 언더도그마로 정의한다. 언더도그마는 오버도그와 언더도그의 대립, 중간 판단자의 세 구성 요소를 지니고, 오버도그와 언더도그가 충돌할 때 언더도그 편을 드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한다.

■논제의 구성

2-1. <가>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마지절의 미덕(美德)을 쓰고, <나>의 글과 그림을 활용하여 그의 행위를 비판하시오. (300자±30자)

<가>에서 마지절은 미천한 농부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경청한 후 그 말을 신뢰한다. 헛된 이름값에 현혹되지 않고 현장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는 미덕을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 전문가로 믿었던 농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다. 그의 말 “소가 싸울 때는 절대로 꼬리를 밖으로 빼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보자면 사실이 아니다. 이중섭의 그림이나 현실의 소싸움 그림에서 소는 꼬리를 밖으로 빼기도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의 충돌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술하는가를 물었다.

2-2. <다>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과 그 구성 요소들이 <가>의 상황에 적용될 가능성을 타진한 후, 그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오. (600자±60자)

<다>의 언더도그마의 내적 구조는 강자와 약자의 대립, 중간 판단자의 존재라는 점에서 <가>의 일화와 닮은 점이 있다. <가> 또한 강자인 대송과 약자인 농부가 ‘소가 싸울 때 꼬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대립하고 있고, 중간 판단자인 마지절이 쉽게 약자의 말을 듣고 신뢰해 버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즉 <다>는 이론적, <가>는 현실적인 내용인데, 이론을 현실에 대입하여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은 것이다. 한편 <가>가 언더도그마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는데, 가령 마지막이 농부의 말을 믿은 것을 약자라서가 아니라 더 믿음직한 현장 전문가라서였다면 그의 행동은 언더도그마의 틀에 가둘 수는 없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 반론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묻은 것이 ‘그 적용의 한계’를 논하라는 문제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1	<p>■ 답안의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p>■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미덕】 마지절이 보인 미덕이란 무엇인가가 잘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① “현장 전문가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핵심적인 대답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그림이 진정한 예술이고 이를 고수하려 했다”는 대답도 나쁘지는 않은 대답이다. 다만 현장전문가 견해를 수용이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p> <p>【농부 말에 대한 반박】 ② 농부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나>의 이중섭의 그림에 대한 태도, 그림, 및 현장 사진을 통해 반박하고 있어야 한다. ③ <나>를 바탕으로 마지절의 행동이 선부른 것이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두 개를 충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두 개를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어법이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2-2	<p>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p> <p>【언더도그마의 개념】 ① 언더도그마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잘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언더도그마는 강자와</p>	

	<p>약자의 대립이 있을 때, 약자의 편을 드는 심리현상임을 말하고, 강자의 주장, 약자의 주장, 중간 판단자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함을 기술하고 있어야 한다.</p> <p>【<가> 상황への 적용】</p> <p>② 대승의 소싸움 그림에서 꼬리를 빠진 상황, 농부의 경험에서 보는 소는 꼬리를 절대 빠지 않는다는 주장, 마지철의 농부편을 드는 행동이 오버도그, 언더도그, 판단이라는 언더도그마에 잘 적용되어 있다.</p> <p>③ 마지철의 행동이 언더도그마의 틀에만 갇히지 않을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 (즉 강자와 약자의 대립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현장전문가라고 생각하여 한 판단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p> <p><유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200자 이내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9등급) 처리함.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을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두 개를 충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두 개를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되 어법이 미흡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어법이 미흡한 경우	8등급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7. 예시 답안

2-1.

밑줄 친 부분에서 보이는 마지철의 미덕은 공허한 명성에 휘둘리지 않고 현장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한 데 있다. 그러나 <나>를 참조할 때 그림을 찢은 그의 행위는 선부른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싸움 때의 소는 꼬리를 절대로 빠지 않는다는 농부의 진술과는 달리 <나>의 이중섭의 소 그림과 현장의 사진에서 보이듯 소는 싸움 때 꼬리를 다리 밖으로 빼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지철이 영터리라고 보고 찢은 ‘소꼬리가 밖으로 나온 대승의 그림’은 사실은 소싸움의 역동적인 한 순간을 잘 포착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그의 행위는 성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2.

<다>의 핵심 개념인 언더도그마는 사람들은 강자와 약자가 대립할 때 약자의 주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그렇기에 언더도그마의 하위에는 강자의 주장, 약자의 주장, 판단자라는 세 구성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언더도그마와 하위 요소들은 <가>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에도 강자와 약자의 대립이 있고 판단자가 약자의 편을 드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에서의 강자는 대승이다. 그는 판

찰을 통해 ‘소의 꼬리가 밖으로 빠져 있는 소싸움 그림’을 그린 바 있다. 농부는 약자에 대응되는데, 그는 대승의 그림과 대립되는 주장을 한다. 즉 ‘소는 싸울 때 절대로 꼬리를 빼는 법이 없다’고 본다.

이 둘의 대립에서 판단자 마지절은 농부의 입장을 지지한다. 대승 또한 소를 관찰하며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볼 때 소의 모습에 대한 전문성은 농부에 못지않지만, 대승의 그림을 부정하고 농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 행위는 언더도그마, 즉, ‘강자와 약자의 주장이 대립할 때 사람들이 약자의 편을 쉽게 드는 경향’과 닮은 점이 있다.

한편, 마지절이 소에 대한 농부의 현장 전문성을 대승의 전문성보다 더 높이 사서 한 행위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언더도그마의 틀에 가두어 적용할 수만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